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 오늘은 의무헌금봉헌주일입니다. 십일조와 월정헌금을 작성하여 드립니다. 헌금은 미리 예배 전에 헌금함에 넣습니다.

신천 집사·권사, 이명 집사·권사를 위한 임원교육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집사교육은 세미나실에서 권사교육은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재무부회의가 오늘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새해에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실 분과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교회 김장을 16일(목)에 담급니다. 함께 일하실 분들은 아침 9시 반까지 교회로 오십시오.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4일(화) 오전 10시 한남동교회에서 열립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의 교회 재정을 확정하고 지방회의 구역대표를 선출하는 구역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조은성 씨와 전희수 씨가 결혼합니다. 예식은 18일(토) 낮 12시에 팬택사옥 '봄날의 정원'(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사 42:1~9 / 시 29	마 16:1-4
행 10:34~43 / 마 3:13~17	

오늘 식당 봉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정숙 홍순구 최재욱
다음 주 식당봉사 : 정영선 홍춘숙 김현주 김경혜 최숙화 김세진
오늘설거지봉사 : 추현영 박진숙 김종락 박영신
다음주설거지봉사 : 추현영 박진숙 정영우 김지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세상에 그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며 살게 해주십시오.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살이 에이는 듯한 한파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과 집이 없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섬기듯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문주 김시영 김종락 박영신 김주영 류준모 심호선 박옥순 서정순
 신진식 변혜정 오미경 윤영미 이광섭 이지영 이재훈 이호원 정현모
 조경자 조항범 오현정 한상경 홍춘숙

감사헌금

김가현 김기석 김희우 김상범 오미숙 김상범 오미숙 김성한 조영순
 김숙현 김용진 박효선 김정진 김혜정 김주현 김철수 유영남 문금석
 문복순 박병구 박성희 박옥식 박홍재 시시권 백경임 심기섭 심해성
 김정숙 안효상 김창경 오미경 윤석철 장혜숙 윤해오 은종인 이광석
 이경희 이광재 이범석 류정욱 이우원 옥귀희 이유일 김미희 이현희
 이영은 임명희 임승동 백혜숙 장재영 전인섭 정영례 조현권 박아영
 무명 27

생일감사헌금

안종일

녹색꿈헌금

무명2

	백혜숙	박성희		
	신진식	최경미		
	장영숙	신영신		
	노순옥	진정숙		
	박홍재	박홍재		
	권미숙	박미영		
	김금순	김금순	심	심
	곽권희	윤수진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홍춘숙		
	박혜경	박혜경		
	김재흥	박숙영		
	김재흥	송형민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		

마음으로 읽는 글

발바닥 사랑

- 박노해

사랑은 발바닥이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자신의 발이 그리로 가면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 가는대로 생각하게 되고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현장에 딛고 선 나의 발바닥
대지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그 영혼의 낙인이 바로 나이니

그리하여 우리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편드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사십시오. 주님의 뜻을 쫓아내듯 실천하며 사십시오. 메마른 우리의 삶에 생명의 시냇물이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된 세상살이에 지쳐서,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심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오희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범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홍순구 권사	이혜수 선생 서정순 집사

1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중수 임주빈 홍복선 최현옥 오자영
	헌금위원	조병무 권미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

자왈子曰 도지이정道之以政 제지이형齊之以刑 민면이무치民免而無恥
도지이덕道之以德 제지이예齊之以禮 유치차격有恥且格 - 「위정」(爲政)

이 글은 덕치주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백성을 이끌어가고 하거나 형벌로써 질서를 바로 세우려 한다면 백성들은 그러한 규제를 간섭과 외압으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될 수 있으면 처벌받지 않으려고 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부정을 저지르거나 처벌을 받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덕으로 이끌고 예로 질서를 세우면 부끄러움도 알고 질서도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정」편의 이 구절은 법가적 방법보다는 유가적 방법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덕치가 평화로운 시대 즉 치세의 학이라고 한다면 행정명령과 형벌에 의한 규제를 중심에 두는 법치는 난세의 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법가와 유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구절을 두 가지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형과 예로 인간관계라는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것입니다. ... 예와 형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은 최소한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에 비하여 예는 인간관계를 인간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세우려는 우회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관계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입장이지요.

물론 사회의 기본적 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이란 한낱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형벌에 의한 사회질서의 확립이 더욱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예는 그 접근 방법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인간관계의 개념으로 재조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바로 그 사

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형인 인간관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두는 것이며 반대로 예는 인간관계를 열어놓음으로써 그것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구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둘째로, 부끄러움에 관한 것입니다. 덕으로 이끌고 예로 질서를 세우면 부끄러움도 알고 질서도 바로 서게 되지만, 정형(政刑)으로 다스리면 형벌을 면하려고만 할 뿐이며 설사 법을 어기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교통순경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네다섯 대 중에서 한두 대만 딱지를 끊자 적발된 차량 운전자가 당연히 항의를 하였지요. 저 애도 위반이라는 것이지요. 교통순경의 답변이 압권이지요. “어부가 바닷고기 다 잡을 수 있나요?” 처벌받는 사람은 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다만 운이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사카구치 안고의 「타락론」에 의하면 사회적 위기의 지표로 ‘집단적 타락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집단적 타락 증후군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선 교통법규 위반 사례와 같이 모든 사람이 범죄자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적발된 사람만 채수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명인의 부정이나 추락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 대신에 고소함을 느끼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부정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거나 추락에 대하여 연민을 느끼기보다는 한마디로 고소하다는 것이지요. 타인의 부정과 추락에 대하여, 그것도 사회 유명인의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단계가 집단적 타락 증후군이라는 것이지요. 타인의 부정은 오히려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정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 전략적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본질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나는 사회의 본질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은 인간관계의 지속성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그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사회란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성 자체가 붕괴된 상태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 신영복, 「강의」 중에서